



La Biennale di Venez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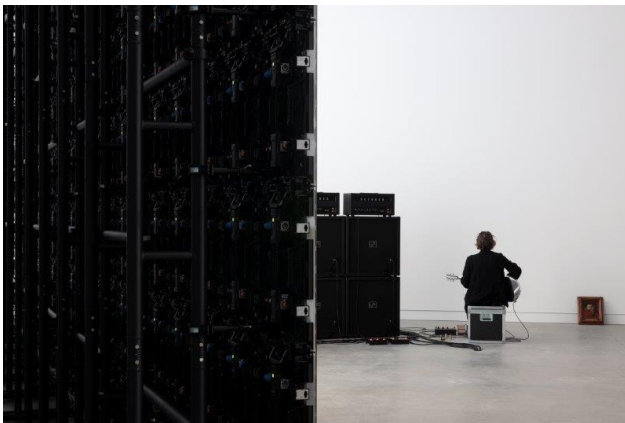
59. Esposizione Internazionale d'Arte

Partecipazioni Nazionali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마르코 후지나토(Marco Fusinato)의 *DESASTRES* 제 59 회 베니스 비엔날레 호주관에서의 실험적인 노이즈 프로젝트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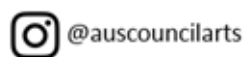


마르코 후지나토의 *DESASTRES*, 2022, 설치로서의 지속형 일인 퍼포먼스, 200 일간 진행. 설치 전경, 호주 파빌리온,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미술전, 사진: Andrea Rossetti

- 호주 예술위원회는 알렉시 글라스 칸터(Alexie Glass-Kantor)가 큐레이션한 마르코 후지나토(Marco Fusinato)의 전시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 *DESASTRES* 전시는 총 200 일 동안 아티스트가 매일 2022 비엔날레 아르떼에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 후지나토의 작가로서의 능력, 상황을 지휘하면서 광범위한 미술사 및 문화적 자료를 개념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은 *DESASTRES*의 핵심이다.
- 관객은 디지털로 본 전시 *DESASTRES*를 확인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desastres_desastres, desastresdesastres.com, 그리고 4월 23일 토요일 라이브스트리밍예정이다.

마르코 후지나토의 *DESASTRES* 전시는 지아르디니 델라 비엔날레, 호주관에서 데뷔한다.

알렉시 글라스-칸터가 기획한 *DESASTRES*는 비엔날레 아르떼 전기간동안 라이브로 실연된다. 이 작품은 관객들이 함께 강렬하게 집중된 에너지속으로 모이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볼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소리는 전이의 경험을 제공하는 물리적인 물질이다.





La Biennale di Venezia

59. Esposizione Internazionale d'Arte

Partecipazioni Nazionali



DESASTRES 설치작에서 후지나토는 스펙타클과 관련된 장비를 조각의 한 형태로서 활용한다. 작업은 시작되는 날부터 매일 색다르며, 이후 전개에 따라 각 관객의 신체적 경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청중을 작동/활성화시키는 나의 아이디어는 참여자에게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맥박이 뛰고 있는 존재"라고 후지나토는 말한다.

이 대형 스케일의 몰입형 작품은 후지나토가 일렉트릭 기타로 즉흥적 노이즈, 그로부터 받은 강렬한 피드백과 강도 높은 불협화음을 만들면, 지지대 없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LED 벽을 통해 이질적면서 연관성 없는 이미지의 홍수를 유발하는 것을 보여준다. 파빌리온은 후지나토가 실시간으로 원인과 결과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 실시간 창작공간이자 연구공간입니다.

이미지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개 검색된 단어 스트림을 기반으로 한다. 그 자체로는 주제가 없으며, 오히려 소리와 이미지의 몰입이 열려 있어 관객이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일종의 환각, 방향 감각 상실속의 당당함, 혼란에서 오는 피로를 의도한다.

글럭시-캐터는 말한다: "DESASTRES 는 괴물입니다: 친절함의 것부터 뻔뻔하고, 터무니없고, 뒤틀려 있고, 숭고하고, 고통스럽고 긴장되는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한데 모은 연회장 같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혼돈과 의도 사이를 영리하게 디디면서, 누적적으로 구축됩니다. DESASTRES 의 관객은 더 이상 어떤 것도 개별로 관찰할 수 없는 증인입니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이미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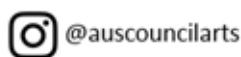
이 작품은 실험 음악, 언더그라운드 문화, 매스 미디어 이미지 및 역사화에 대한 후지나토의 관심의 성취이다. 공연은 공간에서 그의 지속적인 존재(그리고 부재)를 통해 노동, 인내, 부재라는 주제를 탐구한다. 제목은 가사를 항상 스페인어로 쓰는 일본 록 메탈 밴드 Corrupted 와 프란시스코 고야의 전쟁의 참상(1810-20) 시리즈 작품속 컨텍스트에서 영감을 받았다.

후지나토는 말한다: "나는 내 레퍼런스가 다소 삐딱하고, 주변적이기도 하고,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좋아요'를 받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두 가지 재료적 요소가 설치를 구성한다. 지지대없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LED 벽과 증폭기 역할의 벽은 모두 조각적 형태와 존재감으로 작가가 직접 선택한 것이다. 공간을 차지하는 LED 벽의 규모는 맞춤형 제어 장치를 통해 아티스트가 생성한 이미지를 통해 관객을 압도한다. 가장 느린 설정에서는 하나의 이미지가 하루 종일 보여질 수도 있으며 가장 빠른 설정에서는 초당 60 개의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될수도 있다. 아티스트는 작품에 대한 확장된 접근 방식을 자극할 파빌리온 오브제를 계속해서 가져올 것이다. 17 세기 이탈리아 그림속 참수된 머리 형상은 DESASTRES 마스크트이다.

원래 베니스에서 북쪽으로 100km 이내의 돌로미테(Dolomite) 산기슭에서 태어난 후지나토의 부모는 후지나토가 태어난 후 호주로 이주했다. 베니스와의 관계는 시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새로운 삶을 추구했던 호주를 대표하기 위해, 베니스로 돌아온 것이다.

후지나토는 말한다: "저는 부모님이 이민 오기 전에 살았던 지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시간의 붕괴라고 할 수 있죠."





La Biennale di Venezia

59. Esposizione Internazionale d'Arte

Partecipazioni Nazionali



알렉시-칸터는 말한다: "DESASTRES 는 관객을 작품의 중심에 둡니다. 관람객이 설치와 퍼포먼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운드와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서입니다. DESASTRES 는 소리와 이미지의 강렬함에 몰입해서 보고 듣는 것만큼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신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의 모든 경험은 청중이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호주 예술 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는 제 59 회 베네치아 비엔날레 국제 미술 전시회의 국가 참여 부문의 호주측 커미셔너이다.

호주 위원회 CEO 인 에이드리언 콜레트 AM(Adrian Collette AM)은 말한다: "올해 호주관은 자랑스럽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혼란에 이후에 개최된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본 전시회는 가장 기대되는 전시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알렉시 글라스-칸(Alexie Glass-Kantor)가 큐레이션한 마르코 후지나토(Marco Fusinato)의 DESASTRES 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약속합니다. 호주 파빌리온에서 선보이는 최초의 듀레이션 작업이며, 작가에게는 인내의 위업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는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성공적인 모델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베니스에서의 호주의 존재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호주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고, 또한 유관 전문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종사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귀중한 기회입니다."

베니스를 여행할 수 없는 관객들은 4 월 23 일 토요일, 공개 라이브스트리밍을 통해 프로젝트의 일부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 계정 @desastres_desastres 와 프로젝트 웹사이트 www.desastresdesastres.com 을 통해 지속적인 퍼포먼스를 볼 수 있다. 그 채널들로 매일 후지나토의 퍼포먼스 샘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전시회는 호주 위원회와 렌즈(Lenz)가 공동 발행하고, 렌즈가 배포하는 발간물이 함께 제공된다. 컬럼비아 대학교 미술사 교수인 브랜든 W 조셉(Branden W Joseph)의 새로운 에세이와 마르코 후지나토와 알렉시 글라스-칸터의 광범위한 인터뷰가 실려있다. 비평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엘리자베스 포비넬리(Elizabeth Povinelli), AI 연구원이자 작가인 케이트 크로포드(Kate Crawford), 작가이자 큐레이터인 추스 마르티네스(Chus Martinez), 음악가/아웃터 기타리스트인 서스톤 무어(Thurston Moore(Sonic Youth)), 스티븐 오말리(Stephen O'Malley(SUNN O)), 브루스 러셀 (Bruce Russell (Dead C))의 텍스트도 실려있다.

www.desastresdesastres.com

www.australiacouncil.gov.au

소셜미디어:

Instagram @desastres_desastres

@AusatVenice

Facebook @AusatVenice

4 월 23 일 토요일 라이브스트리밍 [링크](#) 클릭





La Biennale di Venezia

59. Esposizione Internazionale d'Arte

Partecipazioni Nazionali



마르코 후지나토의 *DESASTRES*, 2022, 설치로서의 지속형 일인 퍼포먼스, 200 일간 진행. 설치 전경, 호주 파빌리온, 2022 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미술전, 사진: Andrea Rossetti

아시아 기반의 미디어는 하단의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캐롤 로 | 서튼 (Carol Lo | Sutton)

+852 2528 0792 | E: carol@suttoncomms.com

글로벌 미디어 문의:

알렉산드라 로스 | 서튼 (Alexandra Ross | Sut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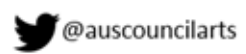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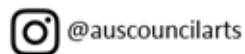
+44 (0) 20 7183 3577 | E: alexandra@suttoncomms.com

호주 및 뉴질랜드 미디어 문의

클레어 마틴 | 아티큘레이트 (Claire Martin | ARTICULATE)

+61 (0) 414 437 588 | E: claire@articulatepr.com.au

고해상도 스코어 이미지 및 프로필 사진 요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DESASTRES 의 프로젝트 업데이트를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 [@desastres_desastres](https://www.instagram.com/desastres_desastres)

[#ausatvenice](https://www.instagram.com/ausatvenice) [#australianpavilion](https://www.instagram.com/australianpavilion) [#biennalearte](https://www.instagram.com/biennalearte) [#auspavteam22](https://www.instagram.com/auspavteam22)

작가 소개: 마르코 후지나토(Marco Fusinato)

마르코 후지나토는 설치, 사진 복제, 공연과 기록의 형식을 취하는 작품을 창작하는 현대미술자가이자 노이즈 뮤지션이다.

예술가로서 후지나토는 자신의 작품을 상호 연결된 프로젝트의 연속작업으로 여기며, 그 중 일부는 수많은 반봉의 양상을 띤다. 논문에서 증명해내는 과정처럼 그의 프로젝트는 특별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며, 거의 항상 연속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지식체계와 문화의 영역을 중형무진하며 후지나토는 하위문화와 제도문화, 소음과 정적,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순수와 오염과 같은 대립개념사이의 긴장과 대조를 탐험한다. 그는 형식적 태도나 사건의 강렬함에 대한 관심에 따라 우화적 차용을 활용해 역동적인 상황을 창작한다.

그의 작품은 '모든 세계의 미래'(All World's Futures) 제 56 회 베니스 비엔날레(2015); 'The Imminence of Poetics ' 제 30 회 상파울로 비엔날레(2012); 제 21 회 시드니 비엔날레, 'SUPERPOSITION(2018): Art of Equilibrium and Engagement'; 'The National 2017: New Australian Art', 호주 현대미술관, 시드니, 2017, 호주; 'Antipodean Stories, PAC: Padiglione d'Arte Contemporanea', 밀라노(2019)를 비롯해 그의 작품은 2013 년 뉴욕 현대미술관(MoMA) 최초의 사운드 전시회 'Soundings: A Contemporary Score'와 뉴욕 기반의 락 밴드 소닉 유스(Sonic Youth)와 콜라보레이션한 아티스트로서 유럽 박물관 순회 전시회 'Sonic Youth: Sensational Fix'(2008-2010)에도 포함되었다.

후지나토는 2006 년부터 안나 슈워츠 갤러리(Anna Schwartz Gallery)에서 정기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EXPERIMENTAL HELL(ATMOSPHERAM)' (2021 년); 'This is Not My World' (2019 년); 'Mass Black Implosion' (2017 년); 'The Infinitives' (2015 년); 'There is No Authority (2012 년); 'Noise & Capitalism', (2010 년), 'Mass Black Implosion(Treatise, Cornelius Cardew)' (2013 년), Double Infinitives (2009 년) 'The Approaching of The Disco Void-Repeated' (2006 년)에도 참여해왔다. 또한 그는 호주내 다양한 개인전과 그룹전으로 국립 기관을 포함한 미술관 및 갤러리 전시를 선보여왔다. The National: New Australian Art 전시회, 호주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Australia, 시드니, 2017); Parallel Collisions 전시, 애들레이드 호주 비엔날레남호주 미술관, 애들레이드(Adelaide Biennale of Australian Art, Art Gallery of South Australia, Adelaide, 2012); Melbourne Now 전시, 빅토리아 국립미술관, 멜버른(National Gallery of Victoria, Melbourne, 2013); New09 전시, 호주 현대미술센터, 멜버른(Australian Centre for Contemporary Art, Melbourne 2009); 그밖에 다수의 다크 모포 페스티벌, 호주 모나 현대미술관, 호바트(Dark Mofa, Museum of Old and New Art, Hobart, 2021, 2019, 2017,



La Biennale di Venezia

59. Esposizione Internazionale d'Arte

Partecipazioni Nazionali



2016, 2014)등이 있다. 2012년에는 The Color of the Sky Has Melted 라는 서베이형 전시로 시드니의 아트스페이스(Artspace)와 브리즈번 현대미술관(IMA, Brisbane)을 선보였다.

음악가로서 후지나토는 전자 기타와 대형 앰프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주파수를 즉흥적으로 사용해, 음악으로서의 노이즈(소음)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구한다. 기념비적인 청각 조각으로 묘사되는 그의 지속적인 노이즈 기타 연주 시리즈 'Spectral Arrows'는 글래스고 국제 예술제(2012)에서 초연 공연 후 전 세계 미술관과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그는 또한 주로 솔로 아티스트로서 실험적인 음악 세계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한다. 후지나토의 첫 번째 녹음은 1996년에 출시되었으며 수십년 동안 주로 바이닐(LP)형태로 된 많은 다양한 녹음을 발표해왔다.

후지나토는 2016년 호주 위원회의 아트 펠로우십 수상자였다.

마르코 후지나토는 안나 슈워크 갤러리 소속이다.

큐레이터 소개: 알렉시 글라스-칸터(Alexie Glass-Kantor)

알렉시 글라스-칸터는 큐레이터이자 예술계 옹호자이며 시드니 아트스페이스의 전무 이사이다. 2014년부터 그녀는 아티스트 주도의 프로젝트를 14개의 국가의 미술기관들과 공동 큐레이팅 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조나단 존스(Jonathan Jones), 언타이틀드(untitled(transcriptions of country)),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경로를 재탐색합니다.(UN/LEARNING AUSTRALIA), 서울시립미술관; 2020년에는 탈로이 하비니 교화(Taloi Havini Reclamation), 다카 아트 써밋(Dhaka Art Summit); 2020년 멜 오'캘러헌(Mel O'Callaghan), 센터 오브 센터(Centre of the Centre), UQ 미술관(UQ Art Museum); 2019년 르 콩포 모데른 아트 센터(Le Confort Moderne), 안젤리카 메시티(Angelica Mesiti), 릴레이 리그(Relay League) 및 아트 선재, 2018년에는 쿤스트할레 트빌리시(Kunsthalle Tbilisi), 조지아(Georgia); 헬렌 존슨(Helen Johnson), 런던 현대 미술관(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ICA); 2015년 니콜라스 망간(Nicholas Mangan), 앤션 라이트스(Ancient Lights), 런던 치센헤일 갤러리(Chisenhale Gallery)를 포함한다.

2017년 그녀는 52인의 작가 52개의 액션(52 ARTISTS 52 ACTIONS)를 구상했으며, SNS를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실천과 예술로서의 행동을 조사했습니다. 2015년부터 그녀는 홍콩 아트 바젤 엔카운터스(Encounters for Art Basel | 대규모 설치 섹션)의 큐레이터를 맡아오고 있다. 글라스-칸터는 페러렐 콜리전스(Parallel Collisions)의 나타샤 벌록(Natasha Bullock)과 함께, 12회 애들라이드 현대미술 비엔날레(Adelaide Biennial of Contemporary Art)와 뉴멕시코의 13회 SITE SITE 산타페 비엔날레(SITE Santa Fe Biennial)의 큐라토리엄에서 공동 큐레이터를 맡았다. 글라스-칸터는 호주 현대미술 기구(Contemporary Art Organizations of Australia)의 의장이며 현재 맡고 있는 이사회 활동은 다음과 같다. 국립 아트 스쿨, 아카데미 이사회, 시드니; 현대미술과 디자인 미술관, 베닐 라 살 대학교, 자문 위원회, 마닐라; 모네시 대학교 큐레이토리얼 박사 프로그램(Monash University Curatorial PhD Program),



La Biennale di Venezia

59. Esposizione Internazionale d'Arte

Partecipazioni Nazionali



심사위원, 어드밴스 글로벌 아트 어워드(Advance Global Awards). 그녀는 공공 프로그램 및 심포지엄 참여하며 호주 전역과 국제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정기적으로 예술상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호주 위원회(Australia Council) 소개

호주 위원회는 호주정부의 주요 예술 투자, 개발과 자문 기관이자 베니스 비엔날레의 호주 커미셔너이다. 본 조직의 목적은 호주 예술과 창의성을 옹호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호주 위원회는 예술을 창조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수상, 펠로우십 및 동료 평가 지원금 등을 통해 예술과 조직에 투자한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호주 국가관은 1954 년에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40 명의 저명한 현대 시각 예술가들이 호주 깃발 아래 전시할 기회를 부여받아왔다. 마르코 후지나토와 알렉시 글라스-칸터는 호주관 내에서 호주를

보여주는 41 번째 팀이다. 베니스 비엔날레 프로젝트에서 호주는, 파빌리언 내의 국가급 참여, 일련의 전문개발 기회 및 프로젝트의 실현을 지원하는 공동 투자 캠페인을 포함한다. 이 프로젝트는 본 위원회의 국제 참여 전략 2021-2025 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호주 국가관(Australia Pavilion) 소개

덴톤 코커 마샬(Denton Corker Marshall)이 디자인해 수상경력에 빛나는 호주 파빌리언은 2015 년에 개관했다. 무루와리 원주민(Muruwari)의 매튜 도일(Mathew Doyle)이 국가관 개관식을 위한 향 피우기 의식을 주도했다. 파빌리언은 지아르디니 델라 비엔날레에 지어진 최초이자, 현재로서 유일한, 21 세기 영구 건축물이다.

호주관의 형태는 최대한 심플하게 설계되었다. 건축가는 그것을 "검은 상자 안의 흰색 상자, 기존 풍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현장에 배치"라고 설명합니다. 검은 화강암의 큰 석판은 건물의 어두운 외관을 구성한다. 일부 패널을 접으면 깨끗한 흰색 내부가 드러나고 내부에 자연광이 유입된다. 이 돌출된 패널은, 전시회가 개최될 때 건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

호주 파빌리언은 비엔날레 정원에 있는 단 29 개 국가관 중 하나이며, 모두 여러 국가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건축되었다. 호주관의 개발은 당시 위원인 사이먼 모던트(Simon Mordant AM)와 호주 위원회가 함께 주도한 민관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 필립 콕스(Philip Cox)가 임시로 설계한 원래의 국가관은 1988 년에 개관 했으며 신관이 오픈하기까지 22 인의 예술가를 소개했다.